

지하차도 안전시설 미비... 기습폭우에 '속수무책'

장마 기간 광주 침수사례 10건 비상사다리·핸드레일 등 '전무' 전남 진입차단시설 10곳 중 1곳도 "상습침수지역 최우선 설치"



광주 효덕지하차도 전경. 효덕지하차도를 비롯한 광주 시내 대부분 지하차도에 비상대피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초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지하 구조물 침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대부분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및 비상대피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주요 지하차도 8곳 중 △비상사다리 △대피 유도 핸드레일 등의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된 지하차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남구 소재 효천지하차도도 마찬가지다.

비상대피시설은 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시 지하차도 이용자가 옥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올 장마 기간 동안 광주에서 10여건의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했지만 기존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외에는 인명피해를 막을 안전시설이 전무한 셈이다.

반면 지난 2020년 7월 초량 지하도 참사를 겪은 부산시의 경우 지하차도가 침수되더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지하차도 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지만, 비상대피시설은 아직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참사 재현을 막기 위해 시에서도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으

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의 경우 설치 의무인 진입차단시설조차 대상 지하차도 총 10곳 중 단 한 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의무 대상 21곳 중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은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10%)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각 시·군과의 협의와 예산 책정 문제 등으로 기한이 밀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7월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비상대피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 도내 주요 지하차도는 △순천 10곳(장천·조례·풍덕·용림·조곡·구암·체육관·서면·

항매·강변) △여수 5곳(석창·상암·호명·반월·진남) △광양 2곳(서천 도월·서측 배후도로) △목포 1곳(옥암) △무안 1곳(오룡) △장성 1곳(장성역) 등 20곳이다. 20곳 모두 매년 장마·태풍 때 침수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진입차단시설은 커녕 비상사다리를 비롯한 비상대피시설 설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열대성 호우인 스콜을 닮은 '초국지성 호우'가 광주·전남에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 중인 김정민(34)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지하차도인데 차도가 침수될 때마다 만약 그 상황에 차도를 지나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며 "폭우로 침수되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 차도에 갇히더라도 한다면 스스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입차단시설 설치 완료를 위한 마무리 절차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에 일부 설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특히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한 지역을 우선으로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지역 교통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 가구공장서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저녁시간에 광주지역 한 목재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1분께 광산구 송치동 한 가구 공장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57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공장 2개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억178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아 기자

여수 남면·삼산면 가두리 양식장서 물고기 집단 폐사

남면 19만마리·삼산 63만마리 등 시 합동조사...복구계획 수립나서

여름철 고수온으로 여수 남면과 삼산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면 양식장 3곳에서 우럭과 송어 등 19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삼산면 거문도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우럭과 능성어, 돌돔 등 63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시는 여름철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양식 물고기 폐사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 어업생산과는 이날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펼치고,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복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정부에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수온에 따라 수질 전부터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어민과 함께 양식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60대 외주업체 직원 감전사

발전기 안전 검사 중 감전

금호타이어 공장서 전기 점검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1명이 감전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외주업체 직원 60대 A씨가 고압 전력이 흐르는 설비에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발전기 안전 검사를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망한 직원은 전기 안전 검사를 위해 공장을 찾은 외주업체 직원으로, 점검 중 흐른 전류에 의해 감전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건은 관련 기관에 접수돼 조사 중에 있고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성아 기자

부춘바람1호~6호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부춘바람1호, 부춘바람2호, 부춘바람3호, 부춘바람4호, 부춘바람5호, 부춘바람6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505-5, 506-2
- 사업 구역의 면적
 - 9,272㎡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960kW (1호 220kW, 2호 99kW, 3호 220kW, 4호 220kW, 5호 99kW, 6호 1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7. 01.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박진이, 장문정, 구태선, 구성림, 김수연, 김경숙
- 의견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7일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일 : hds3388@daum.net
 - 전화 : 061-323-5000
 - fax : 061-323-6000

삼당하늘1호~3호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삼당하늘1호, 삼당하늘2호, 삼당하늘3호 태양광 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51, 51-2, 49
- 사업 구역의 면적
 - 9,266㎡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1,120kW (1호 500kW, 2호 310kW, 3호 31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7. 01.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김금용, ㈜달빛공작소, 고미선
- 의견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7일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일 : hds3388@daum.net
 - 전화 : 061-323-5000
 - fax : 061-323-6000

연정하늘1호~4호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연정하늘1호, 연정하늘2호, 연정하늘3호, 연정하늘4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779, 775
- 사업 구역의 면적
 - 18,608㎡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2,130kW (1호 1000kW, 2호 330kW, 3호 400kW, 4호 40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7. 01.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윤창식, 임서은, ㈜달빛공작소, ㈜노을공작소
- 의견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7일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일 : hds3388@daum.net
 - 전화 : 061-323-5000
 - fax : 061-323-6000

부춘평야1호~7호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 부춘평야1호, 부춘평야2호, 부춘평야3호, 부춘평야4호, 부춘평야5호, 부춘평야6호, 부춘평야7호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부춘리 505, 506, 505-1, 502, 502-1, 503, 508
- 사업 구역의 면적
 - 9,547㎡
- 발전사업의 내용
 - 발전설비용량 : 1,180kW (1호 99kW, 2호 99kW, 3호 99kW, 4호 220kW, 5호 220kW, 6호 220kW, 7호 220kW)
 - 사업개시예정일 : 2027. 07. 01.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 강경아, 구호림, 김동현, 양선욱, 강명규, 고인섭, 고미선
- 의견제출기간
 - 2024년 08월 20일 ~ 2024년 08월 27일 (7일간)
- 의견제출방법
 - 메일 : hds3388@daum.net
 - 전화 : 061-323-5000
 - fax : 061-323-6000

광민 (061)519-0710 팩스 (061)519-0709